38살의 해진 정장을 입은 피아니스트.
A 38-year old pianist wearing a worn out suit.

음악의 골목, 9구 뒷골목에서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My day starts off at the bystreet in District 9, known as the street of music.

일거리를 찾기 위해 지하주점의 문을 두들기며
Just loitering around aimlessly, knocking

정처 없이 뒷골목을 배회할 뿐이다.
at the doors of underground stores, seeking for a job.

허나 내 평판은 진작 이 골목에서 바닥을 기게 된 지 오래다.
However my reputation has already hit the bottom long ago in this very street.

'악보대로만 따라칠 뿐인 비루한 음악가.' '시시한 딴따라.',
'An abject musician who only knows to play by the rules of the music sheet.' 'A boring clown.'

'돈도 연줄도 없는 밑바닥 피아니스트.'
'A poor pianist who lacks any money, with no pull.'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천장은 여기까지임을
I know better than anyone else

다른 누구보다 처절하게 알고 있다.
that this is the gruesome peak of my life.

고급 레스토랑의 전속 피아니스트,
An exclusive pianist of a fancy restaurant,

재벌들의 화려한 사교회 연주 담당
Person in charge of a recital at the social gatherings for the rich.

혹은 자신만의 개인 연주회.
Or arranging a private concert.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에게 그저 때를 놓친 미련일 뿐.
This is all but an unreachable longing for me now.

온갖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지하의 12평짜리 싸구려 주점.
A crummy, 40-square meter bar under the ground, full of all kinds of smoke.

꺼져가는 전구의 희미한 주홍빛이 비치는 풍경은 무덤과 닮았다.
The scenery visualized by the flickering lightbulb's faint, scarlet light resembles a graveyard.

나와 같은 하류 인생들의 무덤.
A graveyard for the low lives such as I.

능력 없는 해결사들과 조직의 말단 같은 쓰레기들이 모여
A place where the scums such as incompetent fixers and the minor of a gang come together,

같잖은 위로의 말로 서로의 가치를 치켜세워주는 곳.
to praise each other with foolish consolation.

이곳에서 나는 오직 악보만을 응시하며 하얗고 검은 건반을 두드린다.
In here I fix my eyes on the score, beating away black and white keys.

주위를 신경 쓰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고 연주를 하게 된 것은
It was 14 years ago which I can't recall vividly,

나조차 기억이 흐릿한 14년 전이다.
that I began to play by dropping my head, unhindered by the surroundings.

출세의 기회를 놓친 24살에 처음으로 주점에서 연주하게 되었다.
I first played at a bar when I missed my chance to be successful at the age of 24.

싸구려 단란주점에서의 연주라는 것은
Playing at a cheap pub came to me as an edge of a cliff,

나에게 더 물러날 곳 없는 벼랑 끝 장소와도 같았다.
where I have nowhere to retreat to.

내 연주가 시작되면 손님들이 하나둘씩 대화를 멈추고 나에게 고개를
As I start playing, the silence slowly covers the room, the customers turn their heads towards me

돌려 연주를 감상해주며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admiring my performance and forming a single bond of sympathy

...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is something I never expect as much.

내 음악이 조금이나마 존중받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했다.
But I wanted my music to be respected a bit more than it is, whilst comforting their minds.

하지만 주점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음악은 주점에
However when I look around the bar, I have to accept the fact

응당 있어야 할 냅킨 정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that my music fits in here like a napkin, which is something you'd naturally see in a pub.

나라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It doesn't matter if I'm not the pianist of this place.

그저 악보를 따라 연주할 수 있는 소품 역할인 그 누구라도 있으면 되는 것이다.
Anyone who can play by the score can be here as a prop.

테이블에 올려진 냅킨과 꽃병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Just assorted there, where it's suitable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적당히 놓여 있을 뿐인…
Like how napkins and vases should be on a table…

쓸데없는 사색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다.
All these unnecessary contemplations happen more often these days.

도시를 감쌌던 3일간의 빛과 3일간의 어둠 그리고 하루의 정적.
Three days of light, three days of darkness and a day of silence that wrapped around the city.

그 일주일을 기점으로 빈번하게 연주 중 옛 생각에 빠짐과 동시에
잊힌 것들이 떠오른다.
Centering around that week, while playing busily I sink into the thoughts of the past and recall forgotten things at the same time.

도시와 어울리지 않았던 따스함과 불안함 그리고 정적 속에서
Have I gained enough composure to introspect in the warmth, anxiety and silence,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라도 생겼던 것일까.
which doesn't fit in with the city at all?

생각에 잠길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은 진작에 닳고 닳아 사라졌을 터인데 말이다.
My heart should've lost its capacity to let me think so deep, for it would've worn out too much already.

오늘도 피아노 소리보다 손님들의 욕지거리와 수다 소리가 더 큰
As always, I gently close my eyes

이 싸구려 주점에서 나는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while moving away my fingers diligently,

지그시 눈을 감는다.
in this crude bar of vulgar words and voices louder than a piano.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
The one job that I can do is to hit the keys.

악보만을 따라칠 뿐인 멍청이들이 널리고 널렸었다.
There were fools here and there who knew how to play exactly as the score they were given.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나보다 높은 곳에 있다.
But most of them are in better places than I am.

어느새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던 놈들이 후원자의 지원 덕으로
I could only watch as the people who I once thought were insignificant

하나둘씩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skyrocket upwards with the support from patrons.

부러웠을망정 분노하지는 않았다.
Though envious, I didn’t resent.

언젠가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게 된다면
I was confident that once my talent gained its rightful recognition,

돈과 연줄로 올라간 놈들보다 높이 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I’d reach a higher place than any others who used cash and connections to get up.

하지만 그 자신감이 깨진 것은 우스우리만치 빨랐다.
But all that confidence was broken so fast it felt like a joke.

이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었을 1년 남짓한 무렵.
About a year after choosing my path to be a pianist.

'재미없는 연주'라는 소리를 들었다.
I’ve heard someone say it’s a ‘boring performance.’

하나 남은 재능마저 누군가의 재능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할 뿐이었다.
Even if it’s the only talent I had left, it all came to nothing compared to other’s talent.

이것을 과연 재능이라 부를 수 있을까.
Dare I call this a talent at all.

그저 남들보다 악보를 읽는 속도가 빨랐고 손이 빨랐을 뿐.
My eyes read the score slightly faster, and my hands were a bit quicker.

그리고 피아노의 소리를 좋아했을 뿐.
I just loved the sound coming from the instrument.

특출나지 않은 적당한 적성 따위였다는 것을 몰라왔다.
I didn’t know that it was a mediocre aptitude.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예술적 재능이라 착각해왔다.
Deluding myself that I am gifted with a unique, artistic ability.

그리고 자신에게 없던 것은 돈 많은 부모나
And I realized that

후원자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it wasn’t just wealthy parents or patrons that I lacked in these hands.

재능조차 없었다.
I wasn’t even gifted to begin with.

내 연주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연주가 아니었다.
My performance wasn’t even mine.

악보에 적힌 오선지를 따라 두드릴 뿐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주.
It could be anyone’s, strictly playing by the rules of the sheet.

내가 아니어도 되는 연주.
The performance where the player didn’t have to be me.

그런데도 왜 나는 건반 위에서 25년이 넘도록
Yet, I couldn’t put my hand down from the keys for 25 years;

손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why is that?

피아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 것이다.
It’s probably because I love piano.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나만을 위한 작은 연주를

And I’m still playing this instrument on my own,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which nobody will pay attention to.

누군가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힘으로 눈을 떴다.
My eyes open up with someone forcefully pulling on my shoulder.

한 놈팡이가 술에 취해 격양된 얼굴로 나에게 무어라 말을 한다.
A drunk bum talks to me with an infuriated face.

같이 온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이 피아노 연주를 좀 해보겠다며
Telling me to move aside,

자리를 비키라고.
so he can play for his fellows who came along.

내 손은 그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건반을 두드리고 있다.
Even then my hands continue to tap the keys away.

곡이 끝나기 전까지는 손가락을 멈출 수 없다.
They won’t stop until the song is complete.

엉덩이를 뗄 수 없다.
This seat won’t be empty till then.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I will not yield.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장소이다. 재능이 없음에도, 멸시받음에도
This is the last place I stand. It’s been kept firmly as my spot with an abject pride of mine,

비루한 자존심으로 꿋꿋이 지켜왔던 물러설 곳 없는 나만의 자리였다.
even when I knew I had no gift in me and people despised.

점주가 와서 일 벌이지 말라고 한다.
The shopkeeper warns me that I shouldn’t make a scene.

당장 비키지 않으면 앞으로 일이 없을 것이라
Threatening loudly that I’ll lose my job

큰소리로 엄포를 놓는다.
if I don’t step aside.

의자에 앉은 채 그들을 올려다보면서도 부지런히 손가락을 놀려 가며
I realize this again as I look up at them seated,

연주를 하고 있자니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using my fingers assiduously to play:

내 연주는 언제나 바닥에서 흐르는 것이었다.
My performance has always been flowing at the bottom.

난 그저 고개만 올려다볼 뿐인 가라앉는 연주를 하고 있었다.
It’s sinking as I look up in eternity.

순간 머리가 울렸다.
My head rang all of a sudden.

점주가 뺨을 내리치며 내 연주는 끝이 났다.
My performance ended as the shopkeeper slapped me across the face.

물에 젖은 수건을 볼에 갖다 댄 채 구석의 탁자에 앉아
I watched the jerk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

무례한 놈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as I sat at the table in the corner with a wet towel against my cheek.

비좁은 주점 안은 여전히 쩌렁쩌렁하게
The cramped up bar

테이블에서 저마다의 천박한 수다가 울려 퍼진다.
is still filled with all kinds of crude chatter from the tables.

예의라고는 모르는 녀석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The man who, is in no way civil,

침을 튀겨가며
brags to his friends, spitting

제 친구들에게 잘난 채체 하고 있다.
as he sits on the piano stool.

이야기를 듣자 하니 가끔 취미로 피아노를 쳐온 모양이다.
It seems that he’d been playing it as a hobby.

부어오른 볼을 어루만지며 나도 진작에 취미로 전향했다면
Stroking my swollen cheek, I wondered if things would’ve been better

지금 보다 좀 나아졌겠느냐는 생각을 할 무렵이었다.
had I taken this as a mere hobby.

감미로운 선율이 흘렀다.
A luscious tune plays along.

저 피아노가 과연 방금까지 자신이 사용한 싸구려 피아노가 맞나 싶었다.
This made me wonder if that was really the same cheap one I’ve been using until now.

분명 자신이 연주했던 것과 같은 곡임에도 곡조가 가슴을 후벼판다.
Although the song is the same, the melody claws into the heart.

주점의 소리는 여전히 시끄럽지만, 자신에게만은 또렷이 들려왔다.
Despite all the noise in the bar, it sounded so very vivid.

그리고 점차 주점의 소리는 사그라들며,
And as all the other sound of the pub subsides,

그곳에 아름다운 곡조만이 남는다.
the beautiful music is the only thing left.

눈물이 흐른다.
Tears roll down.

자신의 마음을 관통하는 선율에 몸이 떨렸고
Body shaking with the melody spearing through my mind,

아름답고 아파서 눈물이 흘렀다.
it was all too beautiful and painful for me to keep the tears in.

곡이 절정을 치달음에 따라 12평 남짓한 이 장소는
As the melody reaches its climax, the small 40-square meter place that this place is,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아늑한 장소가 되어간다.
turns into a warm, cozy place that nowhere else can dare to be.

이것이 진정한 재능이다.
This, is the true talent.

난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아노로 향했다.

At that moment I vaulted out of my seat and headed straight for the piano.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던 개자식을 있는 힘껏 자리에서
And after pushing that son of a bitch aside with all my might,

밀쳐냈다. 내 머리통을 피아노 건반 위에 미친 듯이 두드렸다.
I banged my head against the keys like a mad man.

쿵.
Bang.

뚝.
Snap.

띵띵.
Ding ding.

피아노의 날 선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The piano’s sharp screech resonates.

내 오른쪽 눈알이 흑건에 박혀 눈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머리를 건반
Water runs down as my right eyeball digs into a black key.

위에 비비고 갈았다. 순백의 건반이 붉게 물들어간다. 이어서 왼팔을
I rubbed and grinded my head against the keys. The sheer white keys turn crimson red.

비틀고 꺾어 왼손을 건반에 짓뭉갰다. 입을 벌려 피아노의 모서리에
Then I twisted and snapped my left arm, crushing my left hand. Opened the mouth and rammed it into the corner of the piano.

박았다. 이빨이 부러지고 뽑히며 피아노에 박힌다.
Teeth are broken and dropping out, digging into the instrument.

온몸을 피아노에 문대고 내리치고 갈아낸다.
Rubbing, smashing, and grinding the whole body.

지금껏 피아노에서 듣지 못했던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온다.
A sound that has never been heard before oozes out of it.

손님들이 내 연주를 외면한 것은 밉지 않았다. 저
I wasn’t upset when the customers ignored my performance.

새끼가 내 연주를 무례하게 멈추게 한 것은 밉지 않았다. 점주가 내

I wasn’t upset when that jerk interrupted me.

편을 들지 않은 것은 밉지않았다. 후원자 덕으로 높이 올라간 동기들이
I wasn’t upset when the shopkeeper wasn’t on my side. I wasn’t upset when my colleagues became successful

밉지 않았다. 난 그저 피아노가 좋기에 피아노를 치며 살아가고 싶을
with the help of the patrons. I just wanted to live by playing piano, because I loved to.

뿐이었다. 이 도시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This city won’t allow that. Nothing here goes well if you simply like to do it.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다. 나답게 살아갈 자유는 어디에
Where is my freedom to live as who I am?

있는가. 왜 나는 건반에서 몸을 떼지 못하는가. 마음이 왜
Why can’t I leave the keyboard? Why must my heart be detested so much?

멸시받아야만 하는가. 평가받아야만 하는 이 도시가 혐오스러웠다.
This city disgusted me with all the judgement.

이름도 모를 놈이 나를 밀쳐내고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는 내 자리를
I didn’t think that my seat was taken away when Mr. Nobody pushed me away and sat there.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연주가 내 마음을 홀렸을 때 난
When his melody lured my heart -- only then my seat has truly been stolen.

진정으로 내 자리를 빼앗겼다. 내 연주는 어째서 사람의 마음을 잡지
Why can’t I capture people’s minds?

못하는가. 어째서 나조차 홀리지 못하는가. …모든 것이 뒤틀려있다.
Why can’t I capture my own mind… Everything was in shambles.

정신을 차리니 주점 모두가 내 연주에 귀 기울이고 있다.
When I came to be, everyone was listening to me play.

나의 연주만을 들어주고 있었다.
They were listening to my own performance.

내 피와 살점으로 범벅이 된 피아노가 너절하게 삐걱거린다.
The piano creaks, covered in my blood and flesh.

그런데도 어째서 내 몸은 그 어느 때보다

But how is it possible that my body could play it anyway,

온 힘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가?
with far greater willpower than I've ever had before?

따위는 지금, 이 순간의 환희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That question is trivial compared to the delight in this moment.

멈추지 않은 채 빌어먹을 내 몸뚱이를 피아노에 두드리며 연주한다.
Not stopping, I continue to play by smashing my damn body against the instrument.

피아노는 진작에 망가졌어야 마땅함에도
Although it was supposed to be broken already,

모양새를 갖춘 채 오히려 더 커져 있다.
it's grown to be bigger with a better shape.

건반이 늘어가며 더 커진다.
The keys elongate.

늘어난 건반에 따라 내 팔은 늘어난다.
My arms stretch along.

연주를 위 한 새로운 팔이 솟아난다.
A brand new arm rises for the play.

음악은 더욱더 감미로우며 아름답게 울려 퍼져간다.
The music is more mellow than it ever was, resonating.

눈앞에 악보가 펼쳐진다.
Score spreads out in front of my eyes.

사람들이 나와 같이 찢기며 음표가 되어간다.
People are ripped apart with me, turning into notes.

놈팡이의 몸에서 우러나왔던 것과 같은 소리를 자아낸다.
Making the same sound that came from the body of the jerk.

해결사들이 검을 뽑는다.
Fixers draw their swords.

하지만 이윽고 그들도 연주의 일부가 되어간다.
Alas, they too have become a part of the play.

오선지 위에서 소리가 보인다.
I can see the sound above the music sheet.

비명소리, 살이 터지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내장이 뽑히는
The sound of screaming, flesh exploding, bones breaking,

소리...
and organs being pulled apart.

분명 소음일 터인데 나로 인해 선율이 되어간다.
Though all of that’s a cacophony, it turns into a melody with me.

점차 아름답게 연주되어간다.
It becomes a beautiful performance.

이것이야말로 내 재능이다.
This is the true form of my talent.

지하에 처박혀있던 나와 피아노는 하나가 되어 높은 무대로 향한다.
The piano and I, that used to be under the ground, become one and rise to the higher stage.

도시의 바닥에서 홀로 연주를 한다.
I play alone at the bottom of the city.

언젠가 도시 모든 사람이 내 연주만을 들을 수 있도록
Hitting the keys stronger and stronger,

더욱더 힘차게 건반을 두들긴다.
so one day every ear in this city will be filled with my music.

더이상 시덥지 않은 사색에 잠기지도 않는다.
I don’t sink into worthless contemplations anymore.

후원자든 재능 따위든 상관없다.
I don’t care about patrons or talents.

내가 자아내는 선율 앞에서 모든 것이 하찮을 뿐이다.
Everything becomes worthless in front of my melody.

다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나만의 피아노 앞 보금자리를
Steadily keeping my place in front of the piano,

지키며 나만이 연주할 수 있는 곡조를 흘린다.
I make the tune flow that only I can play.

내 연주는 바닥에서 흐르지만 더 가라앉지 않는다.
Though my performance could be flowing at the bottom, it will not sink further.

이제 누가 굽어보며 연주하고 있는가…
Now look who’s playing the music looking down...

...이제 누가 올려다보며 선율에 몸을 떨고 있는가.
...and look who’s shaking their body listening to the music, looking up.

난 그저 도시에서 태어난 비루한 피아니스트일 뿐이다.
I’m just a poor pianist born from the city.